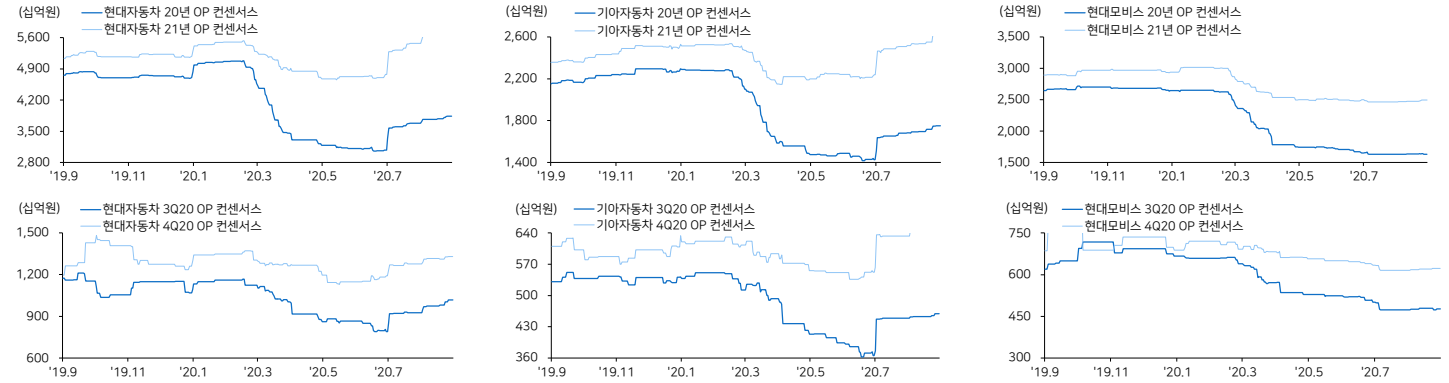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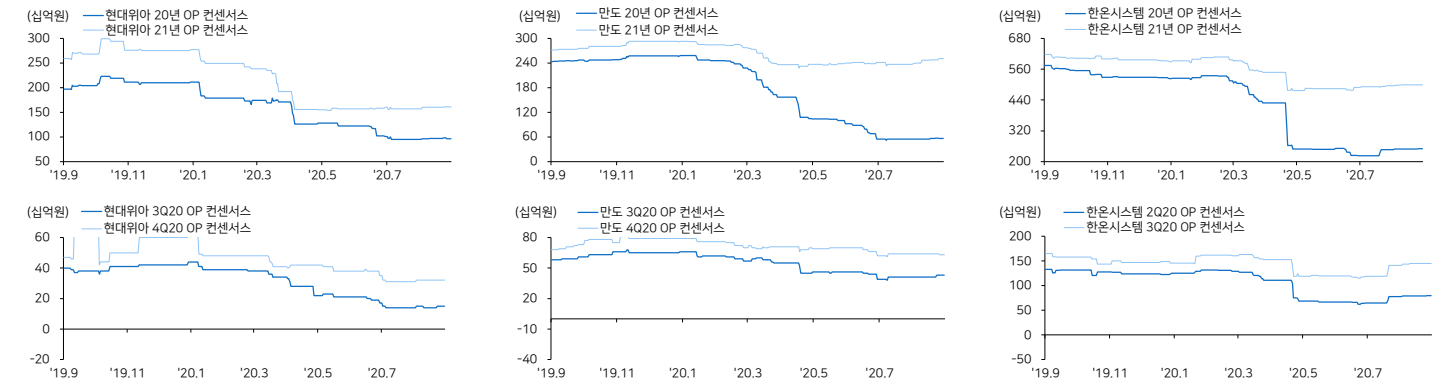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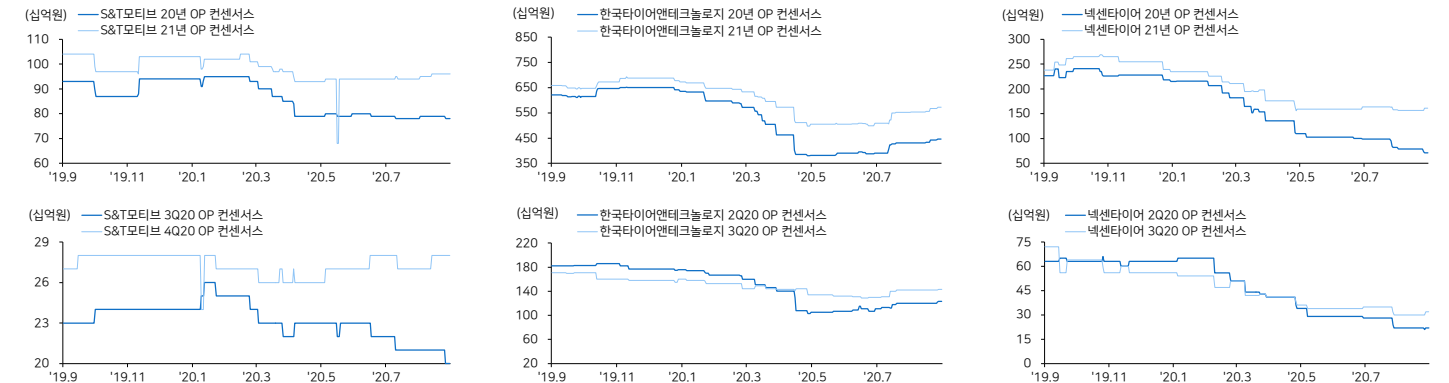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현대차 수소트럭, 中서 기술혁신상... 申 ㅅㅅ이 수상에 韓 유일 (노컷뉴스)

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트럭이 중국 수소 에너지 박람회에서 기술혁신상 2등을 거머쥔. 외국 업체 및 단체 중 현대차가 유일하게 수상에 성공. 완성차 모델로 수상한 것도 현대차분.
<https://bit.ly/33nWqjg>

베트남 M/S 첫 20% · 인도 SUV 1위... 현대 · 기아차 해외서 잘나가는 비결은? (머니투데이방송)

현대자동차그룹의 동남아시아 공략법이 적응하고 있음. 일본차의 뒷발로 여겨졌던 베트남 시장에서 현대차가 첫 시장점유율 20%대를 돌파했고, 기아차는 인도에서 선전하고 있음.
<https://bit.ly/3kCtRfs>

만도, 세계최초 100% 전기신호 조향시스템 상용화 꾀함 (뉴스원)

현대 · 기아자동차와 미래 전기차 플랫폼 분야에서 협업 중인 미국의 스타트업 카누(Kanoo)가 오는 2022년 첫 전기차를 선보일 계획을 밝힘에 따라 새로운 비전을 일일치 주목됨.
<https://bit.ly/3hpA7yW>

"결렬되면 150조원 손실"... 유럽 후협회, EU-美 협상 촉구 (조선비즈)

영국의 유럽연합(EU) 탈퇴(브렉시트)를 앞두고 유럽 23개 자동차 관련 협회가 영국-EU 간의 FTA 협상이 결렬될 경우 2025년 까지 약 1100억 유로(약 154조2600억원)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FTA 체결을 다시 촉구.
<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366/0000589059>

현대차 "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추진팀 결성"... 시험비행 준비 박차 (조선비즈)

현대차 등 4개사는 인천공항공사 청사에서 한국형 UAM을 추진하고 시험비행 실증을 하기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힘. UAM이란 도심 내에서 개인용 비행체(PAV)를 통해 제공되는 교통 서비스를 의미.
<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366/0000592288>

기아차 소하리 공장 21일 오전까지 가동 중단 (조선비즈)

기아자동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가동 중단 중인 광명 소하리 공장을 21일 오전까지 멈출 계획이라고 20일 밝힘.
<https://bit.ly/2RlmYnB>

8월 자동차 수출 · 내수 · 생산 모두 감소 (파이낸셜뉴스)

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지난달 자동차 수출 · 내수 · 생산 모두 감소.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국내 자동차산업 잠정 집계 결과, 전년동월 대비 생산은 6.4%, 내수는 1.2% 감소. 수출은 15.8% 줄었음.
<https://bit.ly/3kALFRc>

"테슬라 접했다"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전기차 등장 (조선일보)

독일 폭크스바겐은 17일 연내에 시판하는 신형 전기 SUV인 'ID.4'를 2025년에 연간 50만대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힘. ID.4는 23일 세계시장에 처음 공개됨.
<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3/00003563084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